■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97-324.
http://doi.org/10.17948/kcs.2020..89.297

출판인 송완식 문학 연구*

배정상(裵定祥)**

목 차

1. 들어가며
2. 송완식 문학의 유형과 특징
3. 나오며

국문초록

남송 송완식은 척박했던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저술출판활동에 매진했던 작가이자 출판인이었다. 처음 영창서관을 통해 다양한 저술 작업을 시도하던 송완식은 이후 동양대학당과 문화사를 직접 운영하며 서적의 출판과 발행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는『카이제루실기』,『익살주머니』,『명금』,『의문의 시체』,『만국대회록』,『장작림실기』,『손일선실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들을 비롯하여, 실용서적, 사회과학서적, 사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저술과 발행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문화적 사명감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의 출판 활동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독자들의 취미를 만족시키고, 지식과 교양을 확장하는 데 크게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19919).

**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기여하였다.

송완식이 남긴 문학 작품들은 저작자이자 출판인이었던 그의 특수한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송완식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넘어, 출판 기획과 편집, 광고 등 책의 저술과 발행, 유통에 이르기까지 주관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예컨대, 동시대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조선의 현실을 반추하도록 했다. 또한 당대의 풍경을 우스운 이야기로 포착해낸 재담집의 저술이나, 활동사진이라는 최신의 미디어 양식을 고소설의 형식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삽화를 활용한 단행본 소설을 저술하여 탐정소설의 장르를 새롭게 선도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동물연설의 서사에 사진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문제를 비판한 것도 출판인 송완식 문학이 지닌 개성을 오롯이 드러낸다.

주제어: 송완식, 출판인, 문학, 카이제루실기, 악살주머니, 명금, 의문의 시체, 만국대회록, 장작림실기, 손일선실기.

1. 들어가며

남송(南宋) 송완식(宋完植)은 척박했던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저술가 겸 출판인으로 활동했던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간혹 작품의 저술을 시도한 경우가 아예 없진 않지만 지속적인 문학 작품의 저술 이후 직접 출판사 운영에 뛰어든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처음 영창서관을 통해 다양한 저술 작업을 시도하던 송완식은 이후 동양대학당과 문화사를 직접 운영하며 서적의 출판과 발행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는 영화소설, 탐정소설, 영웅실기, 동물우화소설, 재담집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을 비롯하여, 실용서적, 사회과학서적, 사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저술과 발행을 시도한 바 있다.

송완식이라는 인물과 그의 다양한 저술출판 활동이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오랫동안 송완식은 주로 『명금』의 번역자나 『(최신)백과신사전』의 편찬자로서 그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 송완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1] 하지만 권철호는 처음 송완식의 작가로서의 면모

1) 허재영, 「송완식(1927)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 『한말연구』 제35호, 한말연구학회,

에 주목하고, 『현대노동문제』, 『의문의 시체』, 『만국대회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2] 이후 박진영은 송완식의 생애와 이력, 저술 출판활동의 전체 규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송완식의 출판인으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가로서의 면모와 그가 남긴 문학 작품의 특징이 온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신문이나 잡지의 기고나 연재보다는 단행본 서적의 저술과 발행에 주력했다. 특히, 예술로서의 문학을 지향하는 고급문예 대신 대량생산의 장안에서 주로 대중적 문예물을 생산했다. 그는 저작권을 출판사에 매매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저작권을 소유한 채 작품 활동을 시도했으며, 1926년 무렵에는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며 저술·출판 작업을 이어갔다. 따라서 그가 남긴 문학 작품들에는 출판인으로서의 개성과 역량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그의 출판인으로서의 역량은 출판기획, 표지디자인, 체제와 편집, 광고에 이르기까지 저술출판의 방대한 범위에 두루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술가 겸 출판인 송완식이 남긴 문학 작품들을 수집·정리하고, 각각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출판인으로서의 개성과 역량이 그의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송완식의 작가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의 문학적 성과를 온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된다. 이는 더 나아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다층적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2. 송완식 문학의 유형과 특징

남송 송완식이 저술한 문학 텍스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

2014; 박형익, 「송완식의 『최신 백과 신사전』(1927)」, 『한국사전학』 제25호, 한국사전학회, 2015.

2)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3) 박진영, 「출판인 송완식과 동양대학당」, 『인문과학』 제109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7.

4) 이 밖에도 송완식은 『현대노동문제』(영창서관, 1922), 『문학신어사전』(영창서관, 연도미상), 『이십세기매도론』(영창서관, 1926), 『과학적 돈 모으는 법』(동양대학당·문화사, 1927), 『최신 백과신사전』(동양대학당, 1927), 『현대노동문제』(영창서관, 1929) 등 다양한 서적의 저술에 힘쓴 바 있다.

번호	제목	저작자표기	출판사	발행일자	분량	가격
1	獨逸皇帝 카이제루 實記	송완식 편	영창서관	1920.1.10.	84쪽	50전
2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송완식 저	영창서관	1921.3.15.	69쪽	30전
3	(사진소설ᄃᆡ활극) 명금	송완식 역	영창서관	1921.7.28.	92쪽	30전
4	俾士麥과 獨逸帝國	송완식 저	영창서관	?	?	50전
5	疑問의 屍體	송완식 작	영창서관	1924.10.30.	222쪽	1원
6	(사회풍자) 蠻國大會錄	송완식 저	영창서관 / 문화사	1926.2.5.	96쪽	70전
	(취미진진 금수대회록) 蠻國大會錄	송완식 저	동양대학당	1926.2.5.	96쪽	70전
7	(怪傑) 장작림(張作霖) 실긔	송완식 저	동양대학당	1929.2.2.	58쪽	30전
8	손일선(孫逸仙) 실긔	송완식 저	동양대학당	1933.2.17.	105쪽	50전

〈표〉 남송 송완식 저술 문학 텍스트

지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송완식의 작품은 총 여덟 편이다.[5] 『만국대회록』의 경우 동일한 작품을 각기 다른 판본으로 출판한 것이다. 저작자 표기는 본문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 초기의 작품들은 모두 영창서관에서 발행되었으며, 1926년 이후부터는 송완식이 직접 운영한 문화사(文化社)와 동양대학당(東洋大學堂)에서 발행되었다. 송완식은 초창기 주로 영창서관에서 활동한 저작자로서 활동하다가, 이후 문화사와 동양대학당을 운영한 전문 출판인으로서 저작과 출판을 동시에 겸했다.[6] 그는 십여 년의 기간 동안 저작자 겸 출판인으로 활동하며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다양한 문학적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5) 1929년 3월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불허가 목록에 송완식 발행의 『장한의 청춘』이 있다. 불허가 요지에는 이 작품이 의사 나석주(羅錫疇)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송완식이 직접 저술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검열로 인해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문한별,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과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대비적 고찰 : 출판 금지 단행본 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2013, 457면.

6) 동양대학당은 원래 왕세화가 1922년에 설립한 것으로, 1926년부터는 송완식이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박진영, 앞의 글, 10-18면.

1) 동시대 세계정세와 영웅실기 : 『독일황제 카이제루 실기』, 『비사맥과 독일제국』, 『(괴걸)장작림 실긔』, 『손일선 실긔』

송완식의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은 바로 『독일황제 카이제루 실기』이다. 본문 첫 페이지에는 "宋完植 編"이라고 적혀 있어 송완식이 저술한 작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판권지에는 저작자 송완식과 발행자 강의영의 이름이 구분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저작겸발행자'에 출판사주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는 구별되는 방식인데,[7] 송완식이 저작권을 전매하지 않고 소유한 상태에서 책을 발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영창서관에서 발행한 다른 작품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볼 때, 처음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송완식은 저작권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이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측면은 훗날 직접 출판사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 작품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카이제루', 즉 빌헬름 2세(Wilhelm II, 1859-1941)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표지 중앙에는 '카이제루'의 사진이 있으며, 본문 앞에는 전장에서의 카이제루의 모습과 만년의 가족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의 구성은 총 22장의 회장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년시절부터 퇴위하기까지의 일대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며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본문의 경우 국한문혼용 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자의 음가를 한글로 병기(倂記)한 부속국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더라', '-니라', '-노라' 등 의고적 문체가 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고소설에 익숙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송완식이 표제에 내걸었던 것처럼, 이 작품은 '전(傳)'이라는 전대의 이야기 양식에 기대기보다는 '실기(實記)'라는 새로운 단어를 표제로 내걸었다. 이것은 기존의 '전'이라는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7) 이 무렵 소설들은 대체로 작가가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 몫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출판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판권지 '저작겸발행자'에 출판사주의 이름이 표기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기형,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245-246면.

을 반영한다. ‘실기’는 한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야기로서의 속성보다, 실제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의 사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중시한다. 『독일황제 카이제루 실기』에서 카이제루는 완전무결한 영웅이나 위인이라기보다는 인간적 결점과 개인적 욕망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한편, 그의 의도는 단순히 한 인물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데 머물지는 않는다. 서문에서 ‘본서는 단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퇴위까지의 행한 일을 간단명료하게 평전(評傳)한’ 것임을 강조한 것은 사실의 기록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 발행된 『비사맥과 독일제국』은 ‘철혈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비사맥과 독일제국』은 현재까지 실물 확인이 어려운 작품이다. 『의문의 시체』나 『만국대회록』의 책 뒤표지에는 송완식이 저술한 작품들이 다수 광고되어 있다. 그 중 『비사맥과 독일제국』에 “宋完植 著”라고 표기되어 있어 송완식의 작품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독일황제 카이제루 실기』와 『비사맥과 독일제국』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 독일 역사 속 영웅들의 일대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역사전기소설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한동안 발행이 금기시 되었던 문학양식이다.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등 우리 역사 영웅은 물론, 잔다르크, 롤랑부인, 나폴레옹, 프리드리히 대왕, 워싱턴 등 타국의 역사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치안방해’라는 명목으로 탄압을 받았다. 1910년 이후 『실업소설 : 부란극림전』(1911)과 『강철대왕전』(1912)처럼 구국의 군사 영웅・혁명가가 아닌 경제계에서 성공한 실업가의 일대기가 간혹 명목을 잇고 있었을 뿐 역사전기소설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다.[8]

두 인물의 이야기는 강력한 독일제국을 건설하고,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영웅적 면모와 국민의 사상을 외면하여 대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9] 송완식은 두 영웅들의 실패한

8) 김성연, 『영웅에서 위인으로 : 번역 위인전기 전집의 기원』, 소명출판, 2013, 65-74면 참조.
9) 송완식, 『독일제국 카이제루 실기』(3판), 영창서관, 1924, 84면. “嗚呼라 人生에 百年之壽 업고

이야기를 통해, 군국주의나 관료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국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치 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이 같은 점은 송완식이 대중적 관심은 물론 나름의 정치적 메시지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비교적 최근의 세계정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그의 출판인으로서의 영민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독일제국의 통일, 뒤늦은 제국주의 식민정책, 1차 세계대전 등의 사건은 일본의 식민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시간이 흘러 송완식은 1929년에 『(괴걸)장작림 실긔』를 자신이 운영하던 동양대학당에서 출판하였다. 장작림(張作霖, 1875-1928)은 중국 동북군벌의 유력한 실세였으나 1928년 6월 봉천에서 열차폭발사건으로 사망한 인물이다. 송완식은 혼란스러운 동북아시아의 정세 한 가운데에서 활약했던 마적출신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한 인물의 영웅적 삶을 다루고자 했다. 표지 중앙에는 장작림의 사진이 있으며, 본문 앞에는 대원수 취임시의 장작림의 모습, 폭탄테러에 의해 부서진 장작림이 탔던 열차, 가정에서의 장작림, 장작림의 아들 팔형제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의 광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10] 절반 정도의 분량은 장작림의 어린 시절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삶을 일대기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장작림의 성격이나 인물됨 등을 다양한 일화를 통해 평론하고 있다. 특히, 제일 마지막 장인 '張作霖의 死와 日本의 特殊利益'에서는 아버지 장작림과는 다른 신진청년 장학량(張學良)의 등장과 국민당 정부의 중국 통일의 상황이 일본의 '만몽문제(滿蒙問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장작림의 죽음이 일

國家에 千年之齡이 업도다 世界統一의 覇業을 成就코자 三十餘年間 精力을 竭헤애 軍國主義와 官僚政治로써 國家를 다사리든 彼는 九州戰爭의 勃興으로써 野心成就의 曙光을 生覺ᄒᆞ고 四年三個月의 猛戰勇鬪의 功이 水泡가 되고 畢竟 革命으로 말미암아 退位까지 當ᄒᆞ고 和蘭蒙塵에 隱居ᄒᆞ게 될줄 누가 想像ᄒᆞ얏스리요 按컨ᄃᆡ 一國의 興亡盛衰는 國民의 思想與否에 基因ᄒᆞᄂᆞ니 故로 天下는 天下이 天下ᄅᆞ지요 軍國主義, 官僚主義者의 天下가 아니요 一國의 政治는 國民의 思想으로 此를 行ᄒᆞᆯ 것이라 ᄒᆞ노라"

10) 송완식, 『손일선 실긔』, 동양대학당, 1933, 109면. "本書는 張作霖의 一代記를 가쟝 春秋의 筆法으로 記錄하고 ᄯᅩ트로 張作霖과 日本의 關係를 赤裸々하게 解剖하야 노왓다 日支問題가 스ᄉᆡ러운 曲折을 할녀거든 本書를 읽으라"

본에게는 한 팔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日支問題가 스ᄯᅴ러운 曲折을 할녀거든 本書를 읽으라"라는 표현은 이 작품의 목표가 단순히 영웅의 일대기를 다루는 데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손일선 실긔』는 1933년 동양대학당에서 발행되었다. 이 작품 역시, 손일선(孫逸仙), 즉 쑨원(孫文, 1866-1925)의 일대기를 다룬 일종의 인물 평전이다.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표지 중앙에는 손일선의 사진이 있다. 손일선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일대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며, 뒷부분에 그에 대한 기념물, 삼민주의, 연설 내용, 황흥과의 관계 등을 통해 그의 생전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송완식은 손일선을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주창한 중국 혁명의 지도자이자, 세계적 위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황제 카이제루 실기』, 『비사맥과 독일제국』, 『(괴걸)장작림 실긔』, 『손일선 실긔』는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동안 단절되었던 역사전기소설의 전통을 일정부분 계승하면서도, '전(傳)'보다 '실기(實記)'라는 글쓰기 양식을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다루는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기보다 실제 역사와 인물의 사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들 작품은 동시대의 역사적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조선의 현실을 반추하도록 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2) 현실 세태의 풍자와 웃음 :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요절초풍)익살주머니』는 송완식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21년 3월 영창서관에서 출판되었다. 표지의 울긋불긋한 그림과 장정이 전형적인 딱지본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으며, 본문 앞에는 전체의 목차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모두 순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며, 총 120편의 짤막한 우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글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한 대중적 출판물로 기획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요절초풍)익살주머니』는 『요지경』, 『絶倒百話』, 『開卷嬉嬉』, 『仰天大笑』, 『깔깔우슴』, 『笑天笑地』, 『八道才談集』 등 1910년부터 발행된 근대 재담집(才談集)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들 재담집은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보편적 웃음 창조 방식을 이어받으면서도,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 하였다.[11]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역시 전대의 웃음 창조 방식을 계승하면서, 당대 현실의 반영과 세태 풍자를 시도하고 있다.

『만국대회록』 뒤표지에 실린 아래의 광고문안은 『(요절초풍)익살주머니』의 창작 원리와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된다.

> 本書는 東西古今의 滑稽笑話와 日本의 落語를 模倣하야 合纂한 者인대 初喪々主라도 안이 웃지 못할 點도 만히 잇고 間々히 사람을 웃켜며 敎訓시키는 點도 적지 아니하며 情神업시 졸고 잇는 同胞를 警醒시킨 鐵槌도 적지안타[12]

위 광고는 이 작품이 '동서고금의 골계소화(滑稽笑話)와 일본의 라쿠고(落語)를 모방(模倣)하여 합찬(合纂)'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동서고금의 골계소화'를 참고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라쿠고(落語)'를 모방했다는 진술은 『(요절초풍)익살주머니』의 창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 '라쿠고'는 한 사람의 라쿠고가(落語家)가 무대 위에 앉아서 입담이 좋게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통적인 1인극이다.[13] 작품 속에서 '라쿠코'의 모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의 전통연희이자 대중적 공연물의 소재와 형식을 모방하였다는 점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또한 웃음과 교훈이 있으며, 이는 정신없이 졸고 있는 동포들을 깨우는 도구가 된다며 작품의 의미와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에는 당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해 사회 풍자나 나름의 교훈을 담고자 했다.

---

11) 윤승준, 「재담의 웃음 창조 방식에 관한 연구 : 1910년대 재담집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64집, 동악어문학회, 2015, 296면.
12) 송완식, 『(사회풍자)蠻國大會錄』, 영창서관・문화사, 1926, 뒤표지 광고.
13) 박전열, 「『라쿠고(落語)』에 나타난 웃음의 전개방식」, 『일본연구』 제25호, 중앙대 일본연구소, 2008, 333면.

새로운 기획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당대의 풍경을 우스운 이야기들로 포착해 내려는 시도가 흥미로운 대중적 출판물이다.

『(요절초풍)익살주머니』는 주로 근대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오해와 사건들을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는 주로 비행기, 군함, 자동차, 기차, 전화, 우표, 유성기, 전깃불, 활동사진, 은행, 목욕탕 등 근대의 새로운 문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근대 문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벌이는 엉뚱한 행동들은 새로운 시대의 일상적인 웃음 소재가 된다. 근대 문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희화화하여 웃음의 코드로 활용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나름의 교훈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당면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지런히 근대의 문물과 제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누구나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계몽적 메시지인 셈이다.

또한 『(요절초풍)익살주머니』는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이 작품은 근대적 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근대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를 보내진 않는다. 특히,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오직 외국 것만 숭상하는 '하이칼나'[14]나 간판만 크게 내걸고 실속 없는 회사나 상점의 주인,[15] '향수를 바르며 의복을 사치하는' 신여성[16] 등은 근대 문물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이나 잘못된 전유의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특성은 이 작품이 근대 문물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문화나 세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마도 작가 송완식의 개인적인 시각이나 대상 독자층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활동사진의 서사적 번역 : 『(사진소설대활극)명금』

1921년 7월 28일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영화 〈명금(The Broken Coin)〉(1915)을 소설화한 송완식의 『(사진소설대활극)명금』이 영창서관에서

14) 송완식, 「9, 하이칼나 자동차」,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영창서관, 1921, 61-62면.
15) 송완식, 「82, 업는 물건은 업소」,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영창서관, 1921, 53-54면.
16) 송완식, 「103, 하이칼나 션생의 무안당함」,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영창서관, 1921, 61-62면.

발행되었다. 미국 영화 〈명금〉은 일본에 먼저 개봉되어 관객들의 환영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1916년 조선에서 개봉된 것으로 보인다.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이 오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야기가 영화, 즉 활동사진이라는 최첨단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표현되었을 때 처음 그것을 접한 관객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명금〉의 흥행은 그야말로 서구 근대문명이 지닌 문화적 위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다.[17]

활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익숙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활동사진에서 받은 충격을 다시 활자 텍스트의 문법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소설의 영화화가 아니라, 영화의 소설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영화 개봉 당시 일본에서는 총 10여 종의 단행본이 간행되었고, 부산 지역신문 『조선시보(朝鮮時報)』에서는 1916년 7월 22일부터 40회에 걸쳐 〈명금〉을 소설화한 작품이 일본어로 연재되기도 했다. 또한 1920년에는 일본 아오키(青木) 판본을 번역한 윤병조의 『(탐정모험소설)명금』이 신명서림에서, 1921년에는 기타지마(北島)의 판본을 번역한 송완식의 『(사진소설대활극)명금』이 영창서관에서 발행되었다.[18]

송완식의 『명금』에는 제목 앞에 '寫眞小說大活劇'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붙어있다. 윤병조의 『명금』이 '探偵冒險小說'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송완식은 자신의 작품을 '寫眞小說大活劇'으로 포장하고 있는 셈이다. 윤병조가 사용한 '探偵冒險小說'은 앞서 일본에서 발행된 단행본들을 참조한 것이다. 1916년 일본에서 발행된 『명금』의 단행들에는 '세계적대활극', '탐정활극', '탐정소설' 등이 사용되었다.[19] 하지만 송완식은 '세계적대활극'이라는 표현

17) 영화 〈명금〉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순진, 「활동사진의 시대(1903-1919), 조선의 영화 관객성에 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16호, 대중서사학회, 2006; 구인모, 「근대기 한국의 대중서사 기호와 향유방식의 한 단면 : 영화 〈명금(The Broken Coin)〉(1915)을 중심으로」, 『한국학』 제3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백문임, 「감상(鑑賞)의 시대, 조선의 미국 연속영화」, 『사이』 제1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이지현, 「1910년대 부산 극장가 문화 연구 : 연속활극 열풍과 부산 극장가의 식민지 근대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5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8.

18) 구인모, 앞의 글, 451면.

19)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명금』 단행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竹内斷腸花, 『(大活劇)名金』, 活

을 과감히 변경하여 '사진소설대활극'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작품의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명금』이 주로 '탐정'이나 '활극'과 같은 작품 내적 측면에 관심을 둔 것과는 달리 송완식은 작품의 미디어적 토대, 즉 '사진'이라는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명금』의 광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단행본 뒤편에 수록된 이들 광고에는 '寫眞小說大活劇', '寫眞插入' 등의 문구가 강조되었고, 작품 소개 내용에도 '세계적 대갈채를 받던 활동사진을 번역'하였다거나 '영화계에서 대갈채를 박득한 활동사진을 지상에 활약시킨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처럼 영화, 즉 활동사진의 소설적 재현이라는 측면은 '실로 반도출판계에 효시되는 세계적대활극'이라고 홍보되며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전략의 핵심이 되었다.[20] 출판인 송완식의 저술 활동은 '사진'과 강한 친연성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특징이 바로 『명금』에서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송완식의 『명금』은 실제 배우들의 모습을 담은 다수의 사진을 삽입하여, 작품 속 이야기가 영화, 즉 '활동사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표지의 사진은 작품 속 주인공 '기치구레'(Grace Cunard)의 얼굴이며, 표지 안쪽에는 '후레데릭백작'(Francis Ford)과 '기치구레', '로로'(Eddie Polo), '사치오백작'(John Ford)의 사진이 실려 있다. 물론 앞서 발행된 윤병조의 『명금』에도 배우들의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송완식의 『명금』에서는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사진이 실려 있으며 두 남녀배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사치오 백작'의 사진이 추가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動文芸社, 1916; 北島俊碩, 『(世界的大活劇)名金』, 春江堂書店, 1916; 『名金』(上・下卷), 活動之世界社, 1916; 長瀨春風, 『(探偵活劇)名金』 前・後, 博文館, 1916; 黒谷天洞 編, 『(探偵活劇)名金』, 講談落語社, 1916; 青木緑園, 『(探偵小説)名金』, 中村日吉堂, 1916; 『名金』 上卷, 世界館, 1916; 『(探偵活劇)名金』(前), 栄館, 1916; 俊碩剣士, 『(探偵活劇)名金』 1-3, 江東書院, 1916; 田口桜村 編, 『(世界的大探偵)名金』(正編·続編), 三芳屋書店, 1916.

20) 송완식, 『만국대회록』, 영창서관, 1926. "本書는 世界的大喝采를 밧든 活動寫眞을 飜譯한 것이라 眞實로 半島出版界에 嚆矢되는 世界的大活劇이오니 반듯이 一讀할 價値가 有하도다"; 『현대노동문제』, 영창서관, 1922. "本書는 일즉이 映畵界에서 大喝采를 博得한 活動寫眞을 紙上에 活躍시킨 것인대 奇々妙々하고 神出鬼沒의 大探偵劇이요 大活劇이라"

송완식『명금』의 원작인 기타지마(北島)의『명금』(1915)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대부분의 작품들에는 이러한 배우들의 사진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21] 이들 작품에는 대부분 그림이 활용되었는데, 그림에 비해 사진은 이 작품이 영화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소설적 재현임을 더욱 생생하게 부각시킨다.

또한 송완식은 본문 앞에 작품의 목차를 제공하는 한편, 각 장의 제목과 구체적인 소제목을 적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목차는 원작인 기타지마(北島)의『명금』(1915)에서 차용한 것인데, 그대로 직역하기보다는 나름의 의도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변형되었다. 예컨대, "一. 소설의 ᄌᆡ료를 구하랴고 (…) 삼년 동안을 차잣단 말이 이상하다 (…)", "十六, 친절한 로인 (…)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 "三十七, 성 터진 틈에 비밀서 (…) 이런 귀신이 곡할 일을 보앗나 (…)" 등은 작가가 꽤나 세심하게 번역의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윤병조의『명금』의 경우 회장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동일하나, 전체의 목차를 제공하거나 소제목을 붙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송완식의『명금』이 꽤나 전문적인 출판인으로서의 감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송완식『명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윤병조의『명금』과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이 작품이 고소설에 익숙한 독자층을 위해 기획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각설', '-왈', '-더라'의 사용을 볼 때 이 작품이 완전한 구소설 체재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윤병조의『명금』이 '-다'체나 발화 내용의 구분을 위한 기호(홑낫표)를 사용했던 것과는 비견된다. 게다가 고소설의 표현 양식이 영화라는 최신의 근대적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데에도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송완식의『명금』은 왜 고소설의 낡은 체제와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는 분명 송완식의 출판 기획과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병조의『명금』이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판본을 기획하려면

21) 확인이 가능한 십여 편의 작품 중 오직 하나만이 표지 안쪽에 영화 속 장면 사진을 삽입하였다.『名金』(上・下卷), 活動之世界社, 1916.

분명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송완식은『명금』은 당시 단행본 서적출판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소설 독자층을 의식한 판본으로 기획 출판되었던 작품인 셈이다.

송완식의『명금』은 영화라는 최신의 미디어를 활자 텍스트로 전환시킨 작품으로, 주로 고소설 독자들에게 익숙한 제제와 형식으로 발행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송완식은 실제와 가깝게 재현이 가능한 '사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구현 방식에 크게 매료되었으며, 이것을 소설 기획과 출판에 적극 활용하고자 했다. '사진소설대활극'이라는 표현이나 실제 배우들의 사진을 적극 활용한 것도 사진이라는 근대적 매체를 출판 기획과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완식의『명금』은 고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을 영화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세계로 인도하였으며, 이미 영화를 본 독자들에게는 영화가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4) 탐정소설과 단행본 삽화의 출현 :『의문의 시체』

1924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된『의문의 시체』는 송완식의 출판인으로서의 역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측면이 많은 작품이지만,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고급문예에 비해서는 대중문학으로서의 특성이 강하고, 추리소설의 장르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 짜임새가 아쉽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22] 하지만 당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동시기 작품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작가가 지닌 출판인으로서의 역량과 관련이 깊다.

특히, 1924년 11월 2일『동아일보』에 실린『의문의 시체』광고는 작품의

22) 권철호는 이 작품을 대량생산의 장에서 발표된 작품이지만, 단순히 통속적 재미만을 추구하기보다 자본주의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적 주제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진영은 1920년대에 창작된 장편 추리소설은『혈가사』와『의문의 시체』단 2종에 불과한데,『의문의 시체』는『혈가사』에 비해 낡은 시대의 자취가 역력할 뿐 아니라 짜임새가 미숙하다고 아쉬워했다. 권철호, 앞의 글, 123-127면; 박진영,『탐정의 탄생』, 소명출판, 2018, 244-246면.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자료가 된다.

小說의 大王! 出版界의 革命兒!!
宋 完 植 作
疑問의 屍體

▲正價金壹圓 ▲送料十三錢 ▲體裁嶄新優美 ▲寫眞版多數插入

自殺이냐 他殺이냐? 疑問의 屍體!!
입으로 옴길 수 업고 붓으로 쓸 수 업는 지긋지긋한 毒婦傳
敗倫殘常된 時代相을 그대로 박은 寫眞!
矛盾된 社會制度에 메스를 下한 新小說!
資本主義의 弊害로 生한 名利輩의 滑稽劇!
壯絶快絶의 模範的 稀代의 探偵劇!!

作者의 巧妙한 筆彩는 敗倫殘常된 時代相을 寫眞機로 박은 것 가치 그리엿고 不合理한 制度를 것침업시 罵倒하엿스며 官僚社會의 惡弊도 忌憚업시 解剖를 하엿다 읽으라 안해 가진 人士와 將次 안해를 마즐 道令님과 人의 妻 가 된 婦人과 將次 싀집갈 아가씨는 반드시 한번 읽으라 그리하야 古人의 金言인『속 못줄 것은 계집』이란 말이 정말인가 거줏말인가를 解決하여라 特히 本書는 讀書力을 增進시키기 爲하야 滋味잇고 아긔자긔한 곳마다 寫眞版을 插入하야 事實을 目睹함과 다름이 업고 體裁도 嶄新優美하여 한번 책을 들면 놋키실토록 되엿나니 實로 半島出版界에서는 처음되는 小說이라[23]

이 광고는『의문의 시체』가 동시기 작품들과 어떠한 점을 차별화하며 기획되었는지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小說의 大王! 出版界의 革命兒!!"이란 표현이다. '출판계의 혁명아'로 작자를 호명하는 방식은 송완식이 작품의 내용을 넘어서 출판과 관련된 더 다양한 부분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일 테다.『의문의 시체』판권지에는 저작자 송완식과 발행자 강의영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데, 송완식이 저작의 권리를 소유한 상태에서 책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완

23)『동아일보』, 1924. 11. 2.

식의 저작권 소유는 그가 작품 속 이야기 외에 출판과 관련된 더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제목 아래에는 가격과 우송료를 비롯하여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색을 홍보하고 있는데, 체재(體裁)가 참신하고 아름답다거나 사진판을 다수 삽입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특색은 모두 작품의 내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출판편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진판을 삽입'하였다거나, '체제도 참신하고 아름다워 한번 책을 들면 놓기 싫도록 한 것이 반도출판계에서 처음'이라는 표현은 이 책이 꽤나 출판편집의 측면에 주력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의문의 시체』는 동시기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여타의 작품들과는 표지 디자인, 본문의 삽화, 장절 소제목 형식 등에서 크게 구별된다. 이러한 특성은 송완식의 출판인으로서의 개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목으로, 동시대 다른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의문의 시체』만의 새로움이다.

『의문의 시체』의 표지 디자인은 대중소설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울긋불긋한 색감의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달리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마치 피로 쓴 듯한 붉은색 제목 아래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표지 한가운데에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몸의 방향은 앞을 향해 내민 왼손을 향하고 있지만, 여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몸의 뒤쪽 오른손을 향하고 있다. 이는 여인의 이중적인 성격을 암시하는 한편, 작품의 장르적 성격을 공고히 만든다. 또한 이러한 여인의 윤곽은 짙은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또한 그녀의 어두운 내면을 암시하는 듯하다. 표지 안쪽에는 아름다운 한 여인의 상반신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임을 짐작케 만든다. 이러한 그림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본문에 삽입된 그림, 즉 삽화(揷畵)이다. 광고에서는 '寫眞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작품에 수록된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의미한다. 본문 삽화는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곳마다' 총 여덟 번 활용되었다. 이미 1912년 이해조의 「춘외춘」부터 삽화가 사

용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문연재소설의 경우에 한정되었다.[24] 단행본 소설의 경우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사진이나 삽화가 들어간 경우는 종종 발견되지만, 본문 사이사이에 삽화가 활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문의 시체』에서의 삽화 활용은 동시기 단행본 소설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개성이다. 이러한 삽화는 '독서력의 증진', 즉 독자들을 텍스트 내부의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도록 고안된 독특한 방식이었다.

작품에 활용된 삽화는 다양한 서사적 상황을 이미지 텍스트로 구현하고 있다. 예컨대, 천연정 연못에서 목 없는 시체를 찾는 장면, 남편을 잃은 국자가 성대한 굿판을 벌이는 장면, 자결하려는 국자를 겸식이 만류하는 장면, 총을 든 사강준이 석애라와 애인의 산보를 엿보는 장면, 재판장에 난입한 국자가 자신의 목을 칼로 찌르는 장면 등 주로 극적인 상황을 이미지화 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삽화는 주로 극적인 서사의 상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재현하여, 작품의 장르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삽화의 활용은 삽화가와의 소통, 편집과 연출 등에서 꽤나 세심한 고려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구적 시도는 송완식의 출판인으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25]

또한 이 작품은 총 47회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 놓았다. 각 장의 제목 아래 소제목을 다는 방식은 이미 『명금』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는데, 『의문의 시체』의 경우 한층 보완된 방식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의 경우 각 장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압축적인 표현이 제시된 것과는 달리 소제목의 경우에는 각 장에 등장하는 인상적인 대화 지문을 사용하였다.[26] 예컨대, "9. 일허바린 륙혈포 (…) 두방은 박동서 노왓지? (…)", "21. 의외에 혼인설 (…) 학생 때부터 다리 길을

24) 최근 근대 소설과 삽화에 대해서 밀도 있게 천착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를 참조하면 삽화는 주로 신문연재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성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 : 한국 근대 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 소명출판, 2020 참조.

25)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다른 작품에서 이처럼 삽화가 활용된 경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삽화의 활용을 영창서관의 사주 강의영의 기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26) 『명금』의 경우 장별 제목과 소제목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썻서요 (…)", "25. 방물쟝사 마누라 (…) 아씨! 봉수에서 사람을 죽엿대요 (…)" 등은 제목과 소제목의 활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이러한 방식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욱 작품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광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책의 '체재'가 매우 전문적인 출판 기획과 편집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의문의 시체』가 장르소설의 토대가 빈약한 시절, 본격적인 탐정소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가정소설'이라는 수식을 사용하였지만, 그 장르적 특성은 광고에서 "壯絶快絶의 模範的 稀代의 探偵劇!!"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탐정소설에 가깝다.[27] 정형사와 송형사의 콤비가 명망가 태준식 실종사건을 추적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게 된다는 이야기의 구조는 『쌍옥적』에서 시작된 정탐소설의 장르적 관습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추리적 요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 진일보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미 작품 표지와 표지 안쪽에 삽입된 그림, 서두에 제시된 두 남녀의 수상쩍은 모습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내는 과정보다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찾는 일에 추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 태준식은 5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연못에서 발견된 머리 없는 시체가 태준식임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임국자의 태아유기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어떻게 규필은 육혈포 살인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석애라를 쏜 사람은 누구이며 세 발의 총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규필과 임국자의 범죄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등 서사의 진행이 범죄, 추리, 해결의 과정의 반복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중 서술자가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며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이러한 사건 진행을 돕는 장치다.[28]

---

27) 『동아일보』, 1924. 11. 2.

28) 다음과 같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송완식, 『의문의 시체』, 영창서관, 1924, 66면. "송형사가 깁흔 밤에 국자의 내실을 뒤진 일은 무삼 까닭이며 뒤문에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뇨?"; 같은 책, 69면. "의사의 말과 걸네조각이 물에 저진 것을 보니 그 말이 어수하고 그 시간이 어제밤 캄캄한 중에 이상한 사람 맛나든 그 시간과 갓다 그것이 녀잘가?"; 같은 책, 151면. "아! 가련한 그의 신

한편 사건이 발생한 계절, 날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사건의 단서를 풀기 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려는 시도 역시 작품의 장르적 성격을 공고히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준식이 돌아온 시각,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돌아간 시각, 국자가 세수하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사건의 인과와 합리적 추론을 독려하는 장치이다. 의사의 시체 부검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거나 육혈포 살인 사건의 누명을 탄환의 종류로 벗기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작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가진 주변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별다른 비중 없이 소모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 역시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독자의 추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기법으로 보인다.

특히, 정형사라는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 시키려는 노력 역시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작품 후반부에 가면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하는 정형사의 이름이 정희춘이고, 그가 일반 형사와는 달리 매우 청렴하고 정의로운 형사임이 드러난다.[29] 그는 규필의 계략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된다. 삼 개월의 재판을 통해 결국 무죄로 방면되었지만 가족들은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정형사는 그만 몸져눕게 된다. 그의 아들 문길은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호떡을 팔러다니 게 되었다가 국자와 규필의 결혼피로연에서 말에 채이는 사건을 겪게 된다. 이를 통해 정형사는 다시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조용히 사건을 추적해 오던 송형사의 도움으로 복직하게 된다. 이러한 인물 제시는 청렴하고 의지가 강한 캐릭터를 구축하여 탐정소설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 장치가 된다.

『의문의 시체』는 탐정소설을 지향하고 있지만, 광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패륜잔상의 시대상', '모순된 사회제도', '자본주의의 폐해' 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불륜으로 인한 살인, 태아 살인 및 유기, 문란한 남녀교제, 부정한 선거 제도, 부패한 형사들의 뇌물 수수 등 다양한 사회문

세 어제까지 범인을 잡던 몸이 용수를 쓰고 쇠토수를 씨게되니 이것이 횡액일가 사실이가?"

29) 같은 책, 149면. "명형사는 형사사회의 별물이다. 가장 진정으로 청백한 형사다 뇌물이나 선물을 결단코 밧지 안는다"

제를 대중적인 장르소설의 형식 안에 녹여낸 것도 이 작품의 성과이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겸식이 미친척하며 국자와 규필을 이어준 것이 그들의 죄상을 밝히기 위한 계략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작품 말미 겸식은 사건 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퇴장한다. 또한 우연한 화재로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포착되고, 핵심적인 용의자 고대성을 갑작스럽게 등장시켜 자백하게 만든 것은 그동안 쌓아온 추리적 요소를 무너뜨리는 아쉬운 대목이다.

5) 연설의 서사와 사진 테크놀로지 : 『만국대회록』

『만국대회록』은 1920년대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동물들의 연설 대회라는 서사 전략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다양한 동물들의 연설을 활용한 이 작품의 풍자적 수법은 자연스럽게 1908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나 김필수의 『경세종』을 떠올리게 한다. 『만국대회록』은 애국계몽기에 발행된 『금수회의록』이나 『경세종』에 비해 비판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지만,[30] 1920년 현실에 맞는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31] 물론 이러한 견해는 주로 서사 양식의 차원에서 도출된 것인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특질을 논하고자 한다.

『만국대회록』은 송완식의 출판인으로서의 면모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송완식은 작품의 내용 저술뿐만 아니라, 출판 기획이나 발행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만국대회록』은 특이하게도 동일한 날짜에 두 개의 판본으로 제작되어 발행되었다. 1926년 2월 5일 『만국대회록』은 영창서관과 문화사에서 공동으로 발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동양대학당에서 발행되었다. 두 책 모두 판권지에 저작자 송완식과 발행자 강의영이 분리되어 표기되어 있다. 당시 송완식은 문화사와 동양대학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32] 『만국

30) 이정옥,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대중서사연구』 제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390면.
31) 권철호, 앞의 글, 127-132면.
32) 영창서관·문화사 판본의 경우, 뒤표지에 문화사 발매 도서 광고가 모두 송완식의 저서로 채워

대회록』은 당대 최대 규모의 출판사인 영창서관과 손잡고 공동으로 발행한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영창서관·문화사 발행 『만국대회록』과 동양대학당 발행 『만국대회록』은 송완식의 출판 기획 및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두 판본은 본문의 내용이나 형식은 완전히 동일한데, 표지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먼저 전자의 경우 표지에 '社會諷刺'라고 표기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 '蠻國大會錄'이라는 제목 위에 한글로 '취미진진 금수대회록'이라고 적혀 있다. 전자가 심플한 디자인의 그림과 활자를 통해 고급문예의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 울긋불긋한 색채의 동물 그림을 통해 딱지본 대중소설의 독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책의 표지 디자인을 통해 각기 다른 독서 관습에 놓여 있던 독자층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읽어낼 수 있다.[33]

또한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진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만국대회록』은 문학 작품을 넘어 동시대 출판물 중에서도 사진 활용이 가장 돋보이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만국대회록』은 광고에서부터 이 작품이 지닌 차별화된 출판 전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사회문제를 구상화시킨 일대화보'[34], '삽입한 사진판은 사실의 증명이 아님이 없다'[35]며 강조하거나, '이름 높은 저자의 독특한 편집술은 사실의 사진판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독자를 울리고 웃기고 꾸짖고 달래는 지상의 활동사진'[36]이라며 이것이 저자 송완식의 독특한 편집 기술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만국대회록』은 문자 중심의 문학 텍스트에 사진이라는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생생한 볼거리가 많은 작품으로 만들어낸 독특한 출판물이다.

실제로 작품의 본문에는 다양한 볼거리의 사진들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진들은 주로 외국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활용되었던 것들로 보이는데, 총 17종

져 있으며, 동양대학당 판본의 저작자 송완식의 주소와 발행소 동양대학당의 주소가 같다. 박진영, 앞의 글, 2017, 10-11면.

33) 이러한 출판 기획과 전략은 이무렵 『(여의귀)강명화실기』 상편이 『(여의귀)강명화전』으로, 『(절세미인)강명화의 설음』이 『(절세미인)강명화전』으로 바뀌어 출판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34) 『동아일보』, 1926. 3. 1.

35) 『조선일보』, 1926. 2. 28.

36) 송완식, 『과학적 돈 모으는 법』, 문화사, 1927, 104면.

의 사진들이 문자 텍스트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있다. 자동차에 올라타 있는 원숭이 운전수, 보통사람과 술 먹는 사람의 정자 현미경 사진,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 파리알 현미경 사진, 높이 두길 되는 개미집, 아프리카에서 보호받는 기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벌거벗고 땅바닥을 구르는 인도사람들, 탐정견이 범인 잡는 연습 장면, 전기충격으로 안락사 당하는 개, 군함에 폭탄 터지는 광경, 살인광선과 그것을 개발한 영국의 과학자 그린델 매튜스, 다리에 그림을 수놓는 미국 여배우, 세계제일의 대포, 워싱턴 대학 부인사격선수의 사진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진들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 내용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처럼 사진을 활용한 편집 방식은 기존의 『금수회의록』이나, 『경세종』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며,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처럼 보이는 토론체 서사 양식을 1920년대의 새로운 버전으로 만드는 핵심 장치가 된다. 이들 사진은 문자 텍스트의 부수적 기능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사진이 흔하지 않던 시절 일부 내용들은 입수한 사진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서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소설의 삽화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미지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라면, 『만국대회록』에서 작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외국의 사례들은 이미 입수된 사진들을 활용하기 위해 제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삽입된 사진들의 일부는 해외의 진기한 사건이나 황당한 일과 같은 것들이며, 이러한 사진은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보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3. 나오며

과학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미디어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해 간다. 근대를 지배했던 활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미디어 환경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완강히 저항하던 문학도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생존전략을 바꾼듯하다. 신춘문예가 유일한 작가 등용문이던 시대가 저물고, 작가 역시 예전처럼

순수문학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시나 소설만을 쓰지도 않는다.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는 어느덧 무화되고, 영화나 드라마의 작가가 가장 선망하는 진로 중 하나가 되었다. 어떤 작가는 순수한 작품활동 외에도 문화평론가, 영화감독, 출판사 대표, 팟캐스트 진행자,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의 직함을 동시에 가지기도 한다. 앞으로 작가란 존재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그렇다면 과거의 작가는 어떠했을까? 문학 활동을 전업으로 삼는 직업으로서의 작가가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등단제도나 원고료, 저작권 문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순수한 작가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인직, 이해조, 최남선, 이광수, 현진건, 염상섭 등 초창기 작가들은 작가이면서 기자, 편집자, 출판인, 교육자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남송 송완식은 다양한 저술 활동을 시도한 작가이면서,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저술은 물론 다양한 서적의 출판기획 및 편집, 발행에 관여했던 전문 출판인이기도 했다. 그의 다양한 활동과 저술 작업은 근대적 분과학문의 체계 안에서 온전한 평가를 얻지 못한 채 역사, 언론, 문학 어디에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남송 송완식은 척박했던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장르와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저술출판활동에 매진했던 작가이자 출판인이었다. 그의 저술은 영화소설, 탐정소설, 영웅실기, 우화소설, 재담집 등 다양한 문학 작품부터, 실용서적, 사회과학서적, 사전편찬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몇몇 저술이 도달한 성취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문화적 사명감을 토대로 이루어진 그의 출판 활동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독자들의 취미를 만족시키고, 지식과 교양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송완식의 문학 작품에는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그의 출판인으로서의 역량이 잘 드러나는 특별함이 있다.

송완식은 사진이나 삽화와 같은 시각 이미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소설이라는 전통적 글쓰기 양식에 사진이나 삽화를 추가하여 당대 독자의 취미를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그가 남긴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표지나 본문 앞에

사진을 넣어 흥미 있는 볼거리를 추가하였고, 등장인물의 모습을 이미지로 재현하여 소설 속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독일황제 카이제루 실기』, 『(괴걸)장작림 실긔』, 『손일선 실긔』 등은 작품이 다루는 속 실제 인물들의 사진을 표지와 본문 앞에 삽입하였고, 영화, 즉 '활동사진'을 소설화 한 『명금』의 경우 '사진소설대활극'이란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실제 배우들의 사진을 담기도 하였다. 『의문의 시체』에서는 단행본 최초로 본문에 삽화를 활용하였고, 『만국대회록』의 경우 다양한 볼거리의 사진들을 본문에 적극적으로 삽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송완식 문학은 새로운 기획과 시도를 통해 식민지 서적출판문화를 주도하였다. 예컨대, 한일강제병합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역사전기소설을 동시대 영웅들의 일대기를 다룬 실기(實記)의 형태로 새롭게 부활시켰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민감한 세계정세를 영웅들의 삶과 행적을 통해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활동사진이라는 최신의 미디어 양식을 고소설의 형식으로 번역하여, 고소설에 익숙한 대중독자들을 영화라는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안내하고자 했다. 삽화를 활용한 단행본 소설을 저술하여 탐정소설의 장르를 새롭게 선도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연설의 서사에 사진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당대의 사회문제를 비판한 것도 출판인 송완식 문학이 지닌 개성을 오롯이 드러낸다.

결국, 이러한 송완식이 남긴 문학 작품들은 저작자이자 출판인이었던 그의 특수한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송완식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넘어, 출판 기획과 편집, 광고 등 책의 저술과 발행, 유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문학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포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야를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으로 넓혔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작가로서의 송완식의 면모를 발견하고, 그의 문학 세계를 정리하는 작업은 지금까지의 한국근대문학사의 빈틈을 확인하는 일인 동시에 새로운 연구 지평의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가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작가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송완식, 『문학신어사전』, 영창서관.
_____, 『비사맥과 독일제국』, 영창서관.
_____, 『(사진소설ᄃᆡ활극) 명금』, 영창서관, 1921.
_____, 『(요절초풍)익살주머니』, 영창서관, 1921.
_____, 『현대노동문제』, 영창서관, 1922.
_____, 『독일제국 카이제루 실기』(3판), 영창서관, 1924.
_____, 『의문의 시체』, 영창서관, 1924.
_____, 『만국대회록』, 영창서관, 1926.
_____, 『(사회풍자)蠻國大會錄』, 영창서관・문화사, 1926.
_____, 『이십세기매도론』, 영창서관, 1926.
_____, 『과학적 돈 모으는 법』, 동양대학당・문화사, 1927.
_____, 『최신 백과신사전』, 동양대학당, 1927.
_____, 『(괴걸) 장작림 실긔』, 동양대학당, 1929.
_____, 『현대노동문제』, 영창서관, 1929.
_____, 『손일선 실긔』, 동양대학당, 1933.

공성수, 『소설과 삽화의 예술사 : 한국 근대 소설의 형성과 소설 삽화』, 소명출판, 2020.
구인모, 「근대기 한국의 대중서사 기호와 향유방식의 한 단면 : 영화 〈명금(The Broken Coin)〉(1915)을 중심으로」, 『한국학』 제36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49-471면.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김성연, 『영웅에서 위인으로 : 번역 위인전기 전집의 기원』, 소명출판, 2013.
문한별,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과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대비적 고찰 : 출판 금지 단행본 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7집, 국제어문학회, 2013, 441-464면.
박전열, 「『라쿠고(落語)』에 나타난 웃음의 전개방식」, 『일본연구』 제25호, 중앙대 일본연구소, 2008, 333-351면.
박진영, 「출판인 송완식과 동양대학당」, 『인문과학』 제109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7, 5-31면.
_____, 『탐정의 탄생』, 소명출판, 2018.
박형익, 「송완식의 『최신 백과 신사전』(1927)」, 『한국사전학』 제25호, 한국사전학회, 2015, 183-202면.
백문임, 「감상(鑑賞)의 시대, 조선의 미국 연속영화」, 『사이』 제14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213-264면.
송기정, 「나의 조부 송완식」, 『근대서지』 제14호, 근대서지학회, 2016, 26-36면.
윤승준, 「재담의 웃음 창조 방식에 관한 연구 : 1910년대 재담집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64집, 동악어문학회, 2015, 269-299면.

이순진, 「활동사진의 시대(1903-1919), 조선의 영화 관객성에 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16호, 대중서사학회, 2006, 225-256면.
이정옥, 「근대 초기 '연극적 소설'과 계몽담론의 서사화 전략」, 『대중서사연구』 제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367-414면.
이지현, 「1910년대 부산 극장가 문화 연구 : 연속활극 열풍과 부산 극장가의 식민지 근대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5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8, 45-58면.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허재영, 「송완식(1927) 〈백과신사전〉의 전문 용어에 대하여」, 『한말연구』 제35호, 한말연구학회, 2014, 317-340면.

【Abstract】

Publisher Song Wan-sik Literature Research

Bae, Jeong-Sang*

Song Wan-sik, Nam Song, was a writer and publisher who devoted himself to various publishing activities, crossing genres and boundaries within the barren colonial book publishing culture. Song Wan-sik, who first attempted various writings through the Youngchang Library, expanded the area to publication of books by directly operating the Dongyangdaehakdang and Munwhasa. He has written practical books, Social science books, and dictionaries including literary works of various genres, such as *Kaijeru Silgi*, *Farce Pouch*, *Myeonggeum*, *The Mysterious Body*, *Barbarian Conference Record*, *Jangjakrim Silgi*, *Sonilsun Silgi*. In addition, his publishing activities, based on a sense of cultural mission, greatly contributed to satisfying readers' hobbies and expanding knowledge and culture within the colonial book publishing culture.

The literary works left by Song Wan-sik convey his unique identity as a writer and publisher. Song Wan-sik had a differentiated personality in that he supervised the contents and format of a literary work, from publication planning and editing, to the writing,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books such as advertisements. For example, through the 'true record' of contemporary heroes,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and reflect on the reality of korea. He also translated the writing of a collection of jaedam that captured the landscape of the time as a funny story, or the latest media style of action photos into the form of old novels. It is also a meaningful achievement to lead the genre of detective fiction by writing a book novel using illustrations. The combination of photographic technology with the narrative of the animal speech, and criticizing the social issues of the day through this, fully reveals the individuality of the publication, Song Wan-sik's literature.

Keywords: Song Wan-sik, publisher, literature, *Kaijeru Silgi*, *Farce Pouch*, *Myeonggeum*, *The Mysterious Body*, *Barbarian Conference Record*, *Jangjakrim Silgi*, *Sonilsu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Yonsei Univ. (Mirae capmpus).

Silgi.

접수일: 2020.09.28.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09.